

존재의 증명

Prologue: 악몽의 잔재

“가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 세레나는 울음을 터트렸다.

“제발 저만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스승님.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짙은 외로움에 그녀는 심지어 고모와 그 가족들의 이름까지 목 놓아 불렀다. 하지만 세레나에게 등을 돌린 채 떠나는 이들 중 그녀를 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세레나는 제 가족들의 뒤를 쫓아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그들과의 거리는 도무지 좁혀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다. 마침내 그들이 점이 되어 사라지고 그녀만이 이 어둠 속에 홀로 남았을 때에서야 세레나는 이것이 꿈이라는 걸 깨달았다.

참으로 새끼강아지 같은 꿈이었다.

*

갑작스레 찬물이라도 뒤집어 쓴 것 마냥 세레나는 눈을 번쩍 떴다.

“.....젠장.”

눈을 뜬 것만큼이나 빠르게 튕기듯이 상체를 일으킨 그녀의 혀끝에서 뱉어진 말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속한 단어들의 연속이었다.

“꿈이 개 같은 걸 보니 오늘 하루 운수는 조졌다.”

창밖은 빛 한 점 없이 캄캄한 게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다. 정확한 시각은 알 수 없었지만 세레나는 자신이 오늘은 더 잠들 수 없다는 건 알았다.

목 안쪽에서 따리를 튼 불안감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들이 악몽 때문에 한층 예민해진 그녀의 신경을 더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이 상태에서 잠들어 봤자 똑같은 악몽에 갇힌 다는 건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습득한 후였다.

“컨디션도 조졌네.”

병든 닭 마냥 낮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꾸벅꾸벅 졸 자신의 미래를 떠올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세레나는 찌든 오물마냥 저를 뒤덮고 있는 감정에 집중했다.

눈앞에 불쑥 들이밀어진 현실과 파트너마냥 쫄래쫄래 쫓아오는 감정, 외로움을 곱씹고 있자면 세레나의 안에선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곤 했다. 피곤도 졸음도, 해야 할 일도 심지어 제 자신까지. 본래 그녀의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들이 텅 비고 오로지 외롭다는 감정과 그 부산물들 같은 감정만이, 예를 들면 비참한 심정이 가득 차곤 했다.

세레나는 가만히 어둠 속을 응시하며 켜켜이 쌓아올린 그 감정들을 받아들였다. 초여름임에도 정체를 추위가 피부를 뚫고 뼈를 갈라 세레나의 안을 차갑게 얼렸다. 가슴은 먹먹했지만 익숙한 감정이라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참고 견디는 게 여러모로 제 정신건강에 썩 좋지 못한 버릇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는 건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레나는 종종 생각했다. 언젠가 이 외로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면 자신은 미쳐버리는 게 아닐까, 하고.

“기분 나빠.”

주어 모를 말을 중얼거리며 그녀는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제 팔을 문질렀다. 땀 때문에 식긴 했지만 분명 피부는 미약하나마 열기를 띄고 있었다. 그러나 세레나는 춥다는 감각 외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Chapter 1: 이방인

세레나는 약사다.

갖가지 약초를 조합해 약을 만들어 팔거나 약초를 다듬어 신전에 파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녀는 적어도 사흘에 한 번씩은 마을 뒤쪽에 위치한 산에 올라 직접 약초를 채집했다.

오늘 세레나가 집 밖을 나선 건 해가 막 뜨기 시작한 때로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각이었다. 악몽으로 인해 생활 리듬이 무너진 탓이다. 이런 날엔 피곤으로 이는 두통에 일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운 건 물론이고 기분 또한 가라앉아 짜증스럽고 불만 가득한, 저기압 상태가 지속되곤 했다.

마음 같아선 오늘은 산을 오르고 싶지 않았지만 부족한 약초가 한 두 개가 아니었기에 최대한 빨리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었다. 속전속결. 집을 나서기 전 그녀가 세운 작전이었다.

“와, 세상에.”

물론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그게 왜 하필 오늘인가 싶었지만 그녀의 푸념에 답을 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악몽으로 인해 컨디션이 조저질 거라는 게 긴 경험으로 인한 학습의 산물이라면 운수가 나쁠 거라는 건 단순한 신세한탄에 지나지 않았다. 설마 진짜로 제 운수가 이리도 나쁠 거라고는 세레나는 상상도 못했다.

“말이 씨가 된다더니.”

어제 저녁 내린 비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웠던 게 화근이었다. 그녀는 방금 전 제가 굴러 떨어진 높은 언덕의 경사면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바닥 가득 뿌리내린 풍성한 덩굴들 덕에 약간의 굽힌 상처들을 제외하면 다친 곳은 없었지만 제 키와 힘으로 저길 오를 수 없으니 왔던 길을 따라 돌아가긴 요원해 보였다.

세레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낯선 길목에 들어섰으니 평소보다 산을 내려가는 시각이 늦어질 게 뻔했다.

그녀는 조용히 작전명, 속전속결을 폐지했다. 대신 오전 중으로 산을 내려가기가 새로운 목표로 갱신되었다.

물론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아 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낯선 길로 들어섰기 때문일까. 평소라면 보기 힘든 약초들이 눈에 띄었다.

물론 이 밖에도 그녀의 계획이 망가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우선 눈꺼풀을 짓누르는 피로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싶다는 인간으로서의 본능과 희귀한 약초들을 채집하고 싶다는 약사로서의 본능 사이에서 후자가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했다는 게 첫 번째 원인이었고 길을 따라 산을 타는 게 아닌 약초를 따라 산을 거닐었다는 게 두 번째 원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으론.....

“으.....”

환자를 만나버렸다.

창백한 안색의 남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직업정신이 투철한 세레나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를 향해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바로 그때였다.

“미엘.”

먹살이 잡혔다. 그와 동시에 열린 눈꺼풀에 세레나는 바로 지척에서 남자의 눈을 마주하게 되었다.

불꽃.

새빨간 불꽃.

세레나는 남자의 눈 속에서 너울거리는 한 쌍의 붉은 불꽃을 마주하곤 화들짝 놀랐다. 빛의 각도에 따라 일렁이는 불꽃의 몸체는 갓 뽑아낸 피처럼 선명한 붉은색이었지만 그 끝은 빛의 각도에 따라 때론 밝은 주황색으로, 때론 검붉은 색으로 물들고 말기를 반복했다. 아주 신비하고 아름다운, 웬지 모르게 시선을 땔 수 없는 그런 색이다.

“그래서 너는 만족하는가?”

갈라지고 메마른, 그리고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그가 세레나를 향해 속삭였다.

“그걸로 행복한 건가?”

낮은 미성이 노랫가락마냥 듣기 좋다고 생각할 때였다. 갑자기 남자의 고개가 꺾였다.

“우웬.”

“.....”

무릎 위로 위액과 정체모를 음식물들이 섞여 쏟아졌다. 세레나는 바닥을 치다 못해 지각을 뚫고 들어가는 제 운수에 대해 생각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지만 뺨어나가는 생각을 막기가 참 어려웠다.

먹살을 틀어 쥔 손을 풀어낸 세레나가 날카로운 눈으로 환자를 살폈다. 남자는 제가 손을 풀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듯이, 아니 애초에 먹살을 쥐었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듯이 계속해서 영문 모를 헛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안색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빠. 구역질을 하고 환각을 보고 있어.’

눈으로 보이는 증상들을 파악하며 남자를 진단하던 세레나는 문득 토사물로 범벅된 제 무릎을 내려다보곤 눈을 크게 떴다. 반쯤 녹거나 짓눌린 새까만 열매들이 가득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구슬 같은 동글동글한 열매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다. 앙증맞게 나무에 매달린 그 열매를 본 순간 세레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무서우신가요?”

남자가 헛소리를 하며 세레나의 소매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빨랐다. 세레나는 들고 있던 약초바구니를 뒤졌다. 가득 쌓여진 풀 더미들 아래, 상비약으로 챙긴 몇 가지 약통들이 그녀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튀어나왔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아무 것도 안 했다고!”

그 중 하나를 집어든 세레나는 환각에 사로잡혀 발버둥을 치는 남자의 모습에 잠시 몸을 굳혔다. 상태를 보아하니 그가 암전히 그녀가 건네주는 약을 먹을 것 같지 않았다.

“아 진짜 오늘 운수 왜 이러냐.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

약과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망설이던 세레나는 약통의 약을 제 입에 조금 담았다. 약 특유의 쓰고 텁텁한 맛이 입 안을 가득 채우자 절로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이게 다 그 악몽 탓이다.

쓸데없는 곳에 책임을 전가하며 세레나는 몸부림치는 남자의 양 볼을 붙잡았다.

‘잘 가, 내 첫 키스.’

그녀의 손이 닿자마자 남자는 발작하며 더 날뛰었지만 세레나는 남자를 붙든 손에 힘을 주었다. 이래봐도 나름 첫 키스에 로망이 있었는데, 그것도 오늘부로 끝인 모양이다.

세레나의 얼굴이 천천히 그를 향해 가까이 다가갔다.

이제는 흐릿한 빛을 띠고 있는 붉은 눈동자가 보였다. 환각에 젖은 그 눈은 약에 취한 사람마냥 풀려 있었다. 환각 성분이 있는 독 열매를 먹었으니 기실 약에 취한 것과 별 다를 바 없었다.

조금 더 다가가자 세레나는 남자가 짙은 눈썹과 반듯한 콧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 챘다. 흠바닥을 뒹굴어 더러워서 그렇지 이목구비가 뚜렷한 게 남자는 꽤나 준수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남자는 지쳤는지 몸부림이 차츰 잦아들었다. 세레나의 손가락이 힘없이 늘어진 남자의 입술을 벌렸다. 그녀는 이제 그의 긴 속눈썹까지 볼 수 있었다. 그 풍성하고 긴 속눈썹이 어찌나 촘촘하고 섬세하던지. 세레나는 순간 남자의 성별을 의심했다.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빛무리에 반짝이는 그 모습에 그래도 첫 키스는 잘생긴 남자랑 하게 되는 구나, 라며 스스로를 위로할 때였다. 이리저리 흠어지고 엉킨 더러운 젖빛 머리칼 사이로 붉은 안광이 번뜩였다.

“지금 나에게 뭘 하려는 거냐!”

“큭!”

반쯤 풀려 있던 남자의 눈은 어느새 환각이 아닌 현실을 보고 있었다. 서로의 콧잔등이 부딪칠 거리까지 가까이 와있던 세레나는 사납게 눈을 치켜뜨며 제 입술을 손바닥으로 가로 막은 그의 모습에 침음을 삼켰다.

‘왜 하필 이 타이밍이야.’

행운의 신이란 게 있다면 그는 오늘 세레나에게서 모든 운을 앗아간 게 분명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완벽한 타이밍에 남자가 제정신을 차릴 리 없었다.

세레나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원망하는 사이 남자는 세레나의 얼굴을 밀어냈다.

“못생긴 얼굴 치워라. 심장이 떨어질 것 같군.”

“.....”

독 먹고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녀의 얼굴을 품평할 정신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냐면 세레나는 제가 받은 모욕에 남자의 뺨이라도

내려쳐야 할지 그도 아니면 독 열매를 이만큼이나 먹었음에도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남자의 회복력에 감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였다. 이번에도 승리한 건 약사로서의 세레나였다.

“이거 마세요.”

세레나는 입 안에 있던 약을 뱉, 하고 뱉어냈다. 저 정도 기운이라면 약 정도는 혼자 먹을 수 있을 터다.

“그게 뭐지?”

“해독제요.”

남자의 질문에 세레나가 대답했다.

“응급처치긴 하지만 루베라를 이렇게나 집어 드셨으니 해독해야죠.”

“.....루베라?”

“이 열매요.”

그녀는 주변에 흩어져 있는 까맣고 작은 열매들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었다.

앞부터 뿌리까지 독성이 가득한 루베라의 잎은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켰고 열매를 먹으면 부교감 신경이 마비되어 버린다. 팽창된 동공, 가파르게 널뛰던 맥박, 호흡이 곤란하고 메스꺼움을 느끼고 환각을 보는 것 모두 이 열매를 먹어 일어난 증상이다.

“베리류 열매처럼 보이지만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저 세상 문 났기 딱 좋죠.”

“.....”

“왕국에선 흔히 보이는 독초인데 모르시는 걸 보니 다른 나라에서 오신 여행자이신가 봐요.”

진료 시 환자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말을 걸던 버릇은 어디 가지 않았다. 나름 상대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 고심하다 내뱉은 말이었는데 세레나의 말을 들은 남자의 눈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듯이 꿈틀댔다.

“알려줄 의무는 없을 텐데.”

“.....”

세레나는 환자의 특이사항에 ‘더러운 성격.’을 머릿속에 적어 넣었다.

“알았어요. 더 안 물어 볼 테니 그렇게 보지 말아요. 자, 이거나 드세요.”

이제는 눈썹만 꿈틀대는 게 아니라 미간도 찌푸려졌다. 잘생긴 얼굴이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날카롭게 노려보는 눈이 꽤 매서웠지만 뭐 어찌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약사가 된 후 약 먹기 싫다고 버티는 사람을 봐 온 게 한두 명이 아닌 세레나로선 당연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게 뭘 줄 알고 우웁, 내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나? 욕!”

“안 먹으면 죽을 지도 몰라요.”

“하, 내가 고작 우웁! 이 정도 독으로 죽을 것 같나? 게다가 정체도 모를 욕, 네가 준 걸 먹느니 차라리 우웁, 이대로 죽는 게 낫겠군. 우웨엑!”

“.....”

‘와, 꼴사나워.’

구역질을 하던지 협박을 하던지 둘 중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세레나는 생각했다. 각각 놓고 보면 이상할 것 없는 행위였지만 합치고 보니 차마 눈뜨고 봐 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남자는 꽤 오랫동안 약을 먹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는 어지간히도 의심이 많았다. 하지만 약을 먹느니 마느니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도 남자의 안색이 시시각각 나빠지고 있었기에 세레나는 결국 최후의 방법을 사용했다. 그녀는 놀란 듯이 눈을 크게 뜨며 남자의 뒤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앗, 저기 멧돼지가!”

“뭐? 억!”

털썩.

세레나의 작은 주먹이 뒤를 돌아본 남자의 명치 한 가운데에 정확히 박혔다. 그의 몸이 실 끊긴 인형마냥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진짜로 이 방법이 먹힐 줄 몰랐던 세레나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여기서 두 번은 더 속일 생각이었는데.....의심이 많은 것치곤 잘 속네.’

의외로 순진한 사람일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었다. 어쨌거나 세레나로선 일이 쉬워졌으니 다행스런 일이다.

세레나는 다시금 쓴 약을 입에 머금고 허리를 숙였다. 가까이서 보인 남자의 얼굴은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마냥 초췌했다. 세레나는 아주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굳이 이 상황에 대해 변명해 보자면 이런 폭력적인 방법이 언제나 쓰이는 건 아니다. 처치가 긴급한데 환자가 비협조적이거나 치료비를 떼먹고 도망치는 양아치들을 혼낼 때나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쓰였다.

약이 잘 넘어갈 수 있게 세레나는 남자의 뒷목을 붙잡아 올린 뒤 손가락으로 입을 벌렸다. 약을 흘려 넣기 위해 입술이 맞닿자 얇은 피부 너머로 차갑고 거친 피부의 감촉이 느껴졌다.

어렸을 적, 첫 키스는 환한 보름 달 아래 꽃이 가득 핀 색색의 들판에서 잘생긴 사람과 하고 싶었다. 왜냐고 묻는다면 좋아하는 동화책 속 왕자님이 공주님에게 그렇게 키스해줬기 때문이다.

그런 입맛 좋은 미래가 순순히 펼쳐질 리 없다며 스승님은 세레나의 미래와 머리 상태를 걱정했지만 당시의 그녀는 꽤 진지했다. 얼마나 진지했냐면 스승님에게 반박하기 위해 1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그 로망을 간직하고 있었을 정도다. 물론 그것도 지금 이 순간부로 끝이었지만.

입술과 입술이 꽤 오랜 시간 맞닿아 있었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였기에 설렘이라든가 두근거림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이런 게 자신의 첫 키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탄은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다. 세레나는 남자가 약을 잘 삼켰는지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기요?”

해독효과가 있긴 했지만 루베라에 독에 대한 해독제는 아니었기에 이걸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에 지나지 않았다. 약 덕분에 상태가 악화되진 않겠지만 이 이상 호전되지도 않을 터다. 역시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했다.

집에 있을 루베라의 해독제 양을 가늠하며 세레나는 남자의 몸을 흔들었다. 산을 내려가야 했기 때문이다.

“이봐요, 치료 끝났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주세요.”

하지만 남자는 깊게 기절했는지 눈을 뜨긴 커녕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세게 치지도 않았는데 꿈쩍도 안하는 남자의 모습이 얄미워 세레나는 아주 잠깐, 그를 발로 차버릴까 고민했다.

‘체력이 떨어져 약해진 상태인가.’

더럽고 초췌한 물골을 보아하니 어디서 고생 깨나 한 것 같았다. 세레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열렬한 부름에도 남자는 끝끝내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 진상이네요."

약을 거부하는 남자의 태도 때문에 원치 않은 폭력을 휘두른 데다 첫 키스의 로망도 깨진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이제는 그를 매달고 산을 내려가야 하게 생겼다. 마음 같아서는 이대로 그를 여기에 버려둔 채 가버리고 싶었지만 약사로서의 양심이 세레나를 괴롭혔다.

"하아."

이제는 오늘의 운수에 대해 한탄하기도 지쳤다.

세레나의 목표는 어느새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약초 바구니를 앞으로 매고 남자를 등 뒤에 업었다. 남자는 무게가 꽤 나갔지만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둔 덕에 세레나는 어렵지 않게 그를 들어 올렸다. 약사는 첫째도 체력, 둘째도 체력이라는 스승님의 가르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음, 저기요."

다만 머리 하나 이상으로 키 차이가 났기에 남자의 발끝이 아슬아슬하게 땅에 끌렸다. 이대로 내려가면 바닥에 끌린 신발 코가 상할 거 같긴 했지만.....

"불편한 곳이 있다면 지금 말해주세요."

"....."

당연하지만 기절한 남자에게서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다.

“없으면 그냥 갈게요.”

일방적인 통보 후, 그의 침묵을 제 좋을 대로 해석하며 세레나는 산을 내려갔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산을 내려가는 내내 남자의 눈이 뜨이는 일은 없었다.

“나는.....대체 왜 고생을.....사서 하는가.....”

등 뒤에 무거운 짐덩이를 매단 채 산길을 헤매던 세레나가 집에 도착한 건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한 늦은 오후의 일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가장 먼저 남자를 침대 위에 던져 놓았다. 알뜰게도 그는 그 순간까지 미동도 안했다.

그가 기절해 있어서 좋았던 점이라고는 딱 하나, 오는 길이 조용했던 점 밖에 없었다. 기절한 사람을 업고 오는 건 눈 뜬 사람을 업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기 때문에 남자를 눕히자마자 세레나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늘어졌다. 불면으로 인한 피로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녀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치료비.....평소보다 왕창 받아 낼 거야.....”

결심은 비장했지만 남자의 빈곤한 물골을 보고 있자면 과연 제대로 은화 한 푼 받아낼 수 있을 까 싶었다. 불안감이 슬금슬금 연기처럼 피어올랐지만 세레나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그럼 일을 해볼까.”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걸로 그녀의 하루가 끝났을 리 없었다. 완전히 못쓰게 되어 버리기 전에 캐 온 약초들을 정제하고 부족한 약을 만들어 놔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독된 남자를 위해 루베라의 해독제를 준비해야 했다.

루베라의 해독제를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왕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초인 만큼 데르마일 왕국 출신 약사에게 루베라의 해독제 제조는 기본중의 기본이다. 수

요도 많은 약이라 만들어 두면 손해 보는 일이 없었다. 약방에 다른 약은 없어도 루베라의 해독제가 있는 건 이런 이유에 기인했다.

그래, 어렵지 않았다. 단순히 약만 준비하는 것은 말이다.

"....."

세레나는 여전히 눈을 뜰 생각이 없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아니 침대 위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젠장.'

정말이지 오늘 하루는 여러모로 조졌다. 그녀는 눈을 딱 감고 약을 입에 물었다. 그렇게 세레나의 첫 키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키스도 날아갔다.

'유피언니가 세 번째 키스부터 카운트 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세레나는 어쩐지 몹시 억울해졌다.

남자가 눈을 뜬 건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였다.

해가 진 남빛 하늘 위로 허리 가는 초승달이 걸리고 그 주위를 장식하듯 점점이 흩뿌려진 별무리가 반짝일 무렵, 마침내 정신을 차린 남자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녁으로 먹을 뉘는 스투를 끓이고 있던 세레나는 그 요란한 기상에 놀라 저도 모르게 국자를 든 채 멍청한 얼굴로 그를 응시했다.

남자는 상체를 일으키자마자 주변을 휘휘 둘러보았다. 낯선 환경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그러던 중 그의 붉은 눈이 낮을 놓고 있던 세레나의 푸른 눈과 마주쳤다.

"여긴 어디지?"

세레나와 시선이 맞닿자마자 언제 당황했냐는 양 남자의 눈이 사납게 치켜떠졌다.

여전히 멍청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는 세레나와 무척이나 비교되는 표정 변화였다. 세레나는 다시금 억울한 기분이 들었다.

“내 집이에요.”

기껏 힘들게 데려와 하나 밖에 없는 침대도 내주고 치료도 해줬는데 이런 대접이라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정도가 있었다. 오늘로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를 신세한탄을 속으로 늘어놓으며 세레나는 낡은 나무 그릇에 스튜를 담았다.

“당신, 나한테 감사해요 해요. 그 숲에 버려두지 않고 챙겨 와주고 약도 주고 이렇게 밥도 주는 착한 사람이 또 있을 거 같아요?”

“.....”

“듣고 있어요? 감사해야 한다고요.”

세레나는 남자가 제 말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눈으로는 힐끔 힐끔 제 손에 들린 스튜 그릇을 보고 있다는 걸 눈치 챘다.

‘내가 의심스럽고 싫긴 하지만 배는 고프다 이거지.’

얼굴에 흰히 드러나는 그 솔직함에 어이가 없다 못해 실소가 나왔다. 기가 막혔지만 환자가 식욕을 느낀다는 건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 세레나는 좋게 넘어가기로 했다.

“내 이름은 세레나예요.”

그릇을 건네주며 그녀가 말했다. 남자는 온 몸으로 ‘난 네가 아직도 의심스럽다.’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배고픔을 이기진 못했는지 순순히 그녀가 내미는 스튜를 받

아들였다.

“몸은 좀 어때요? 아직도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껍나요?”

“.....아니.”

“약이 들었나보네요. 다행이다.”

“내게 약을 줬다고? 언제.....어?”

제 머리카락 배를 만지며 고개를 갸웃하던 남자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입을 딱 벌렸다.

“그리고 보니, 너!”

“네?”

“감히 날 속여 기절시켰지!”

“.....”

성격 나쁜 남자가 왜 그 일에 대해 조용한가 싶었는데 여태 기억해내지 못했던 모양이다. 남자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기절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전부 떠오른 모양인지 그는 경악한 얼굴로 제 입술을 매만졌다.

“그리고 나한테 약을 줬다니.....너 설마 나한테!”

“맹세컨대 사심 한 점 없는 순수한 치료 행위였어요.”

천장에서 치즈와 직접 만든 빵을 꺼내던 세레나가 억울함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 고향에서 나한테 키스하고 싶어 하는 여성이 한둘이었는지 알아?”

“.....”

아직도 독이 다 해독되지 않은 건가?

괴짜괴한 물골로 헛소리를 내뱉는 남자를 보며 세레나는 무슨 말을, 아니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졌다.

‘치료 행위를 두 번이나 했다는 걸 알면 난리가 나겠네.’

환자의 정신 건강과 제 귀를 위해 세레나는 그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에 당신이 순순히 제가 주는 약을 받아먹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 성격에 잘도 여자가 꼬였겠네요.’ 라고 빈정거리고 싶은 걸 억누르며 세레나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약, 만약을 위해 한 번 더 먹어야 하니까 또 같은 일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다음엔 줄 때 순순히 먹도록 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남자는 끝까지 순순히 협력할 마음이 없어보였다. 컵에 마실 물을 담고 있던 그녀의 입에서 절로 큰 한숨이 터져 나왔다.

“저기요, 이래봐도 제가 당신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

“모르는 사람이니 의심 하는 건 이해하는데 제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싶었으면 진작 끼쳤지 이렇게 약도 주고 밥도 주겠어요?”

구구절절 맞는 말에 온 몸에 가시를 세우고 있던 남자가 잠시 주춤했다. 그녀는 남자에게 빵과 치즈, 그리고 물 컵과 약이 담긴 접시를 건네주었다.

“난 이 마을의 약사예요. 주신 오펜하임께 약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맹세한 이후 그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약사가 되기 위한 절차는 꽤 복잡하지만 일단 시험에 통과하고 한 명의 약사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면 신전에 가서 주신 오펜하임께 기도를 드려야했다. 약사로서 환자를 못 본 척 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 갖은 지혜를 다 쏟아 부을 것이며 어찌고 저찌고. 내용은 엄청 길지만 요약하자면 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약사가 된 지 어언 4년 째, 지금까지 그 맹세는 어찌저찌 나름 잘 지켜지고 있었다. 세레나의 몇 안 되는 자부심 중 하나다.

“적어도 당신의 몸에 해가 되는 짓은 안 할 테니까 먹어줘요. 다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

조곤조곤 설득하는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조용히 제 손에 들린 그릇을 바라보던 남자가 스튜를 한 숟갈 떠먹었다. 타오르는 불꽃을 연상시키는 짙은 붉은 빛 눈동자가 놀라 동그랗게 뜨었다.

‘맛이 이상한가?’

손가락을 문 채 굳은 남자의 모습에 세레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냄비를 내려다보았다.

“.....나룬이다.”

남자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제 몫의 스투를 떠 맛을 보고 있던 세레나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스튜엔 문제가 없었다. 아니 오늘은 특히 더 간을 잘 맞춰 맛이 기가 막혔다. 남자가 대체 뭐에 놀랐는지 세레나로선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나룬이요?”

속으로 제 요리 실력에 감탄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던 그녀는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말한 것이라는 걸 한 박자 늦게 눈치 챘다.

“그리고.....”

남자, 나룬의 입이 잠시 소리 없이 열렸다 닫혔다. 찡그려진 미간, 상기된 볼, 머뭇거리는 태도. 망설이는 나룬의 모습에 세레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저래?’

“그.....”

그는 아까보다 훨씬 더 작아진, 유심히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살려줘서 고맙다."

성질 나쁘고 비협조적인 환자의 태도에 감사 인사라곤 기대하지도 않던 세레나가 눈을 깜빡였다. 왜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나 했더니 겨우 저 말이 나오지 않아서 공공 앓고 있던 모양이다.

"아하하! 무슨 비밀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속닥거려요?"

세레나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트렸다. 부끄러워하는 모양새가 귀엽다고 느껴지는 건 둘째 치고 살려줘서 고맙다는 환자의 말이 싫을 약사는 없었다.

"천만해요. 그리고 그렇게 부끄러워 할 거 없어요. 약 값은 받아낼 테니까."

"뭐?"

"왜 그렇게 놀라요? 그럼 이게 다 공짜인 줄 알았어요?"

"....."

넋이 나가 병진 얼굴을 보아하니 공짜인 줄 안 모양이다. 하지만 땅 파서 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약사가 이 모든 것을 공짜로 해 줄 리 없었다.

"감사 인사 받은 걸 감안해서 은화 다섯 개만 받을 게요. 산에서 데려오고 약도 주고 밥도 주고 잠자리도 내준 것 치곤 싼 편이죠?"

은화 한 개면 마을에서 빵 두 덩이 정도 살 수 있는 돈으로 치료도 해주고 하룻

밤 머물게 해주는 값으로 은화 다섯 개면 싼 편이다. 사실 반나절 동안 고생 한 걸 생각하면 은화 스무 냥은 뜯어내고 싶었던 세레나로선 이정도면 많이 봐 준 셈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남자는 배신이라도 당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딱 벌렸다.

“멋대로 살려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아깐 고맙다면서요.”

“약사들은 환자의 감사와 건강을 최고의 보상으로 치지 않나? 오펜하임께 기도를 올릴 때 그렇게 맹세하잖나?”

“어? 그 기도문을 알아요?”

그 기도문은 딱 한 번, 약사 자격증을 받던 날을 위해서만 외우고 그 후론 쓰일 일이 없어 기도를 올린 세레나도 지금에 와서 내용이 가물가물했다. 그것을 약사도 아닌 이가 전문(全文)을 외우고 있단 사실이 그녀로선 꽤 신기했다,

‘확실히 그런 문장이 있었던 것도 같고.....’

없었던 거 같기도 하고.

“.....”

역시 잘 모르겠다고 세레나는 생각했다.

“물론 건강해진 환자의 감사 인사가 좋긴 하지만 그게 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살려면 정신적인 포만감이랑 육체적인 포만감, 둘 다 필요하다고요.”

“.....내 감사 인사 물어내라.”

나룬은 몹시 억울해 보였다. 마치 '내가 이런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다니.'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얼굴이다. 그 모습을 보며 세레나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나는 누구 씨처럼 속이 좁지 않으니까 내 치료 물어달란 소리 안 할게요. 그리고 당신이 뭘 모르나 본데 원래 감사 인사는 돈으로 내놓는 거 예요."

"이 속물!"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레나는 돈을 받지 못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어도 나룬에게선 은화 다섯 개는커녕 동화 1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그는 거지였다. 가진 거라곤 입고 있는 옷이 전부인 빈털터리의 거지. 그녀의 불길한 예감이 적중한 순간이다.

"어디서 강도라도 당했어요? 어떻게 돈이 한 푼도 없을 수 있죠?"

"없을 수도 있지. 살아가는데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지금의 당신에겐 필요할 텐데요."

뻘뻘한 나룬의 말에 남자의 상의를 털고 있던 세레나는 기가 막히다 못해 머리가 다 아파왔다.

'이걸 어쩐다.'

먼지만 날리는 옷을 보고 있자니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돈은 물론이고 가진 것 하나 없는 환자를 받는 건 4년의 약사인생 중 오늘이 처음이다.

"출근. 돈이 없는 걸 확인했으면 내 옷을 내놔라."

상의는 물론이고 바지와 신발까지 빼앗긴 나룬이 세레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민하는 그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세레나는 저만 고민하며 공공 앞는 이 상황이 어쩐지 몹시 불공평해졌다.

‘스승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이 계속되자 세레나는 자연스레 그녀의 스승님을 떠올렸다.

세레나에게 있어 스승님은 단순히 약초학과 의학을 전수해 준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서부터 삶을 마주하는 자세, 그리고 스스로를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그의 가르침은 세레나의 인생 전반에 걸쳐 곳곳에 녹아들어가 있었다.

세레나가 약사 자격증을 받은 그 날, 더는 가르칠 것이 없다며 그는 세레나의 곁을 떠나 홀로 여행길에 올랐지만 그녀는 아직도 스승님의 가르침을 갈구하며 고민할 일이 있으면 과거의 기억 속에서 그의 모습을 찾곤 했다.

‘.....스승님이라면 이럴 때.’

그를 떠올릴 때면 언제나 창밖을 향한 시선과 의욕 없는 나른한 표정, 그리고 몸을 감싼 희미한 담배연기가 자연스레 함께 떠올랐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모습도 특유의 분위기도 은은한 향도 앞으로도 잊혀 지지 않을 만큼 선명하고도 또렷하게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이리오름, 세레나.]

“.....”

문득 기억 속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그의 목소리에 파도처럼 밀려온 그리움이 세레나의 마음 한 구석을 부드럽게 쓸고 지나갔다. 기억은 순간이었지만 그 흔적은 영원했다. 쓸쓸함과 그 쓸쓸함을 홀로 견뎌야 한다는 억울함이 울컥, 목 끝까지 치

밀어 올랐다.

‘분명 이럴 때 스승님이라면.....’

“왜 우는 거지?”

“어? 아.”

목 끝까지 올라온 외로움은 입이 아닌 눈을 통해 흘러나왔다. 방울방울. 불을 타고 흐르다 턱 끝에서 떨어지는 눈물에 세레나는 당황했다. 이렇게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세레나는 스승님이 보고 싶었다. 나직이 웃는 모습이라든가 귀찮으니까 저녁은 안 먹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모습이라든가 약사가 네 놈 노예인줄 아냐며 진상 환자에게 긴 담뱃대를 던지는 모습까지. 세레나는 그 모든 순간들이 그리웠다. 그가 그리웠다.

가르칠 것이 없어도 그녀의 옆에 있어주면 안되었던 것일까? 왜 자신도 여행길에 함께 데려가 주지 않았을까? 방해되지 않을 자신이 있었는데.

‘언제나 계속, 쪽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미안하다.”

소매로 눈물을 훔치던 세레나는 갑작스레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잘생긴 얼굴을 잔뜩 일그러트린 나룬이 그녀를 향해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세레나는 그가 지금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갑자기 왜?’

어안이 다 빙빙했다. 도무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청한 얼굴로 눈을 깜빡이는 세레나를 향해 나룬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치료비가 없어서 미안하다.”

“.....”

“돈이 그렇게 궁할 줄 몰랐다. 네 사정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군.”

‘아니, 그거 아니야.....’

갑자기 떠오른 스승님에 대한 그리움에 콧물까지 흘쩍이는 세레나의 모습을 나룬이 단단히 오해한 모양이다. 그는 약간의 안쓰러움을 담은 시선으로 세레나를 바라보며 혀를 차기까지 했다.

“이 낡은 침대와 네 누추한 차림새로 짐작했어야 했는데..... 그래, 방의 모습을 보니 너에겐 살아가는데 돈이 꼭 필요하겠군.”

“지금 누가 누구 처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동화 한 푼 없는 빈털터리 거지에게서 살림살이를 걱정받자 세레나는 흐르던 눈물이 쏙 들어감을 느꼈다.

“아니 그리고 왜 거기서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건데요? 미안해 할 거면 치료에 비협조적이었던 당신의 태도를 반성하라고요!”

“지금은 잘 협조하고 있지 않나.”

식사 후 쓴 맛에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해독제를 다 먹은 일을 말하는 모양이다. 그걸로 마음 켜기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나룬의 태도는 당당하기 그지없었다. 속옷 한 장만 입고 저렇게 당당하기도 힘들겠다고 세레나는 생각했다.

“그보다 정말 추우니 옷을 돌려줘라.”

“.....가져가세요.”

세레나로선 저 뻘뻘함에 맞받아 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손을 내미는 나룬에게 얇전히 옷과 신발을 건네주고 그가 옷을 입는 걸 바라보았다.

‘뭐가 저렇게 당당한 거야? 생긴 건 멀쩡하면서 성격 이상해, 저 사람. 이 근방에선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여행자인가? 아니 근데 무슨 여행자가 돈이나 호신용 무기 하나 없이 다녀? 진짜 어디서 강도라도 당한 건가? 근데 그러기엔 몸이 다친 곳 하나 없이 너무 멀쩡한데.....’

소매에 팔을 꿰는 나룬을 보며 세레나의 머릿속으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이었다. 어찌되었건 결론이 ‘성격 이상한 사람이다.’로 귀결되긴 했지만 가만히 남자를 관찰하고 있자니 자문이 끊이지 않았다.

‘얼굴도 몸도 멀쩡한 사람이 돈도 없이 여행을 다닌다? 내가 주워온 게 혹시 멍청이인걸까.어라?’

순간 떠오른 가설일 뿐이지만 어쩐지 굉장히 납득 되는 설명이다. 멧돼지가 나왔다는 제 거짓말에 단박에 속아 넘어가는 순진함도 그렇고 돈 한 푼 없는 제 처지는 생각지도 않고 그녀의 살림살이나 걱정하는 어딘가 어긋난 상황파악 능력을 보아하니 나룬은 굉장한 멍청이가 틀림없었다.

‘그래, 빈털터리인 것도 강도를 당한 게 아니라 사기꾼에게 홀라당 속아서 다 뺏긴 거야!’

상대가 현실 파악 못하는 바보라는 걸 깨달자 마치 자신이 상전이라도 되는 것마냥 고압적인 말투를 쓰는 것도 이해가 갔다. 세레나가 그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낄 만도 했다. 그는 진짜로 남들과는 다른 이상한 사람인 것이다.

나룬을 향한 세레나의 눈이 애잔하게 변할 때였다. 옷을 다 꿰입은 나룬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그녀를 향해 물었다.

“아, 그러고 보니 물어야 할 게 있었군. 너, 혹시 엘리사 뮤젤이라는 이름을 들어 본 적 있나?”

“엘리사 뮤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세레나는 고개를 저었다.

“검은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남자다. 지금쯤이면.....30대 후반쯤 되었겠군.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은 본 적 없나?”

“.....”

한없이 진지한 나룬의 말에 세레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 진짜 바보다.

“그런 인상착의만으로 사람을 찾았다간 10년이 지나도 절대 못 찾을 걸요. 데르마 일 왕국에 흑발에 벽안을 가진 사람이 한 둘인 줄 알아요? 당장 저만해도 검은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 마을에만 해도 30대 후반의 흑발 벽안의 남자는 열 손가락이 넘어요. 좀 더 그 사람인 걸 알아볼 만한 인상착의는 없어요? 몸에 흉터가 있다가나 문신이 있다가나, 뭐 그런 거요.”

세레나의 말에 나룬이 눈을 굴렸다. 쉬이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걸 보니 일단 몸에 흉터나 문신이 있는 사람은 아닌 모양이다.

“머리를, 길게 기르는 걸 좋아했어.”

엘리사 뮤젤이라는 사람에 대해 떠올리는지 나룬이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니, 자르는 걸 귀찮아했다고 해야 하나? 어쨌거나 늘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다녔어. 키는, 180은 넘었을 거야. 아니면 그 언저리. 체격은 호리호리하지도 근육이 많지도 않았어. 피부는 아주 하얗지도 까맣지도 않았고.”

참으로 특징 없는 사람이라고 세레나는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본 건 언제예요?”

“음, 한.....10년 전?”

“.....”

그 대답에 순간 그녀는 무슨 말을, 아니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졌다. 세상에, 이렇게나 도움 안 되는 설명이라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람은 얼마나 변하겠는가? 피부색과 체격의 변화는 물론이고 흉터나 문신이 몸 어딘가에 생겼을지 모른다. 결국 그의 설명에서 건질만한 것은 180언저리의 큰 키 밖에 없었다.

“저기.....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설마 지금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여행 중인 거예요?”

“그래, 맞아.”

“.....”

“뭐 문제될 게 있나?”

‘문제? 지금 이 멍청이가 문제라고 했나?’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려도 못 찾을 인상착의로 사람을 찾아 여행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그의 모습에 세레나는 답답해서 속이 터진다는 게 무슨 기분인지 생생히 경험 했다.

‘.....이 사람, 이러다 죽는다.’

무소유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소지금은커녕 여벌의 옷 한 벌도 없는 나룬의 모습을 보며 세레나는 확신했다.

‘이대로 두면 분명 어딘가에서 객사할 거야.’

오늘이야 죽어가는 그를 어쩌다 운 좋게 의학 지식이 있는 세레나가 발견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다음에도 그에게 이런 행운이 있으리라곤 장담할 수 없었다. 어딘가에서 비명횡사할 게 눈에 선한 그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순 없었기에 세레나는 결국 마음을 굳혔다.

‘이 약방에 잡일꾼으로 고용해야겠다.’

나룬에게도 나쁜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세레나는 생각했다.

‘노잣돈을 많이 줄 순 없겠지만 여기 머무는 동안 숙식을 제공하고 기초적인 약초학을 가르쳐 주자. 그러면 적어도 루베라 같은 독초를 함부로 주워 먹는 멍청한 짓은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지.’

물론 여기에 나룬의 의사는 개미 눈곱만큼도 반영되지 않았다.

‘분명 스승님이라도 이렇게 하실 거야.’

하지만 머릿속으로 이미 스스로를 납득시킨 세레나는 조금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한 채 이 결과를 나룬에게 알려주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뺨에 와 닿는 따가운 시선에 접힌 옷소매를 잡아 펴던 그의 눈이 의아함을 담고 세레나를 바라보았다.

“뭐지?”

“당신,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럼 몸으로 갚아요.”

“.....뭐?”

나룬의 얼굴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을 그려냈다. 하지만 세레나는 개의치 않았다. 지금 문제는 은화 다섯 개의 치료비가 아니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보수를 드릴 게요. 작은 마을의 약방이라 넉넉하진 않겠지만.....아, 숙식도 제공할 게요.”

“지금 나한테 하룻밤 이상 머물라는 거야?”

“네,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있어 주셨으면 하는데요.”

“.....”

한 달 정도면 여행길에 발견할 수 있는 식용 약초와 독초 정돈 구분시킬 수 있을 터였다.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상처약이나 감기약 같은 실용적인 약들의 조제방식을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약사 자격증이 없으니 팔 손 없어도 만들어 둘 줄 알면 비상시에 도움이 되겠지.’

여행 중엔 원래 뭐가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 뭐든 준비해 뒀서 나쁠 건 없었다. 세레나는 스승님이 여행을 준비하던 날들을 떠올리며 여행에 필요한 지식들을 하나 하나 추려냈다.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리 어렵진 않을 거 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지는 전부 제가 알려 줄게요.”

“알려준다고? 네가?”

“네, 당연하죠. 당신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실 거잖아요.”

“.....”

“연속으로 움직이는 날엔 좀 고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무시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게요. 저만 믿으세요.”

나룬의 표정이 한층 더 기괴하게 변하는 동안 세레나는 속으로 나룬이 약방에서 할 수 있을 법한 일을 꾀아 보았다.

‘처음엔 기초 지식이 없을 테니 약방을 맡길 순 없을 테고, 환자를 보는 걸 돕거나 신전에 심부름을 보내는 걸 시켜야겠다. 마을에서 장을 볼 때 짐꾼을 시키거나.....’

“너, 내가 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네?”

고개를 들자 어느새 세레나의 앞까지 성큼 다가온 나룬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

었다. 아까까진 ‘루베라는 사실 정력에 좋다.’ 따위의 헛소문을 듣기라도 한 것 마냥 한껏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짓고 있던 그는 이제 웬지 모르게 자존심이 상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세레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어, 그야.....”

세레나는 눈을 굴렸다.

사실 나룬은 약학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걸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분 나빠 하는 걸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약초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루베라엔 입도 대지 않았을 텐데.....’

자신이 뭔가 놓친 게 있는 건가 싶어 세레나는 생각에 잠겼다. 바쁘게 돌아가는 머리와 함께 절로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나룬이 그걸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긴 손가락이 숙여지는 세레나의 턱을 위로 끌어 올렸다.

“외모도, 태도도, 단순히 살아온 햇수만 계산 해봐도 내가 너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을 거 같지 않나?”

“네?”

“가르침을 줘야 할 건 네가 아니라 내 쪽 같은데.”

“.....”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목소리가 낮고도 다정했다. 시선을 올리자 초승달마냥 살짝 휘어진 눈이 보였다. 부드럽게 접힌 붉은 눈이 달콤한 목소리와 더없이 잘 어울렸다. 세레나는 벌린 입을 닫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청한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래? 그보다 날 가르친다고? 대체 왜? 무엇을? 아니, 그보다
아까부터 대화가 뭔가 이상한데?’

머릿속이 쉴 새 없이 바빠 돌아갔다.

문득 나룬과 마주하고 있던 세레나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틱틱 대던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에 이 다정함이 작위적
이란 건 바로 눈치 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뒷목의 숨털이 바짝 서
며 온 몸에 소름이 올라왔다. 눈앞의 남자가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
진다는 건 둘째 치고 왜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어렴풋이 눈치 챘기 때문이
다.

“저기, 당신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이 부족했다. 물론 몸으로 갇으라, 라는 말에 남녀 사이의 육체적인 관계가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세레나의 말은 잡일꾼으로서 제 약방에서 몸을 움직여 일하
란 뜻이었다. 맹세컨대 사심한 점 없었다.

“오해는 무슨.”

하지만 나룬은 그 말을 조금도 믿지 않았다. 코웃음을 치며 세레나를 비웃은 그는
작게 한숨을 내뿔으며 중얼거렸다.

“처음 만났을 때 키스하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건 약을 먹이려고 어쩔 수 없이.....! 아니 그것보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
라고요!”

“그래그래.”

세레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제 진심을 표현했지만 나룬은 그 모습을 본 체도 하지 않았다. 그 대충대충 나오는 대답에 세레나는 기가 막혀왔다.

“미안하지만 나는 찾는 사람이 있어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몸이다. 내일 아침엔 떠나도록 하지.”

눈 한 번 깜박이는 사이 허리에 단단한 팔이 감겼다. 세레나는 이제 기가 막히다 못해 코도 막힐 지경이었다. 숨이 안 쉬어졌다.

“하지만 ‘가르침’은 주도록 하지. 원래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넌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

“바라던 대로, 몸으로 갚을게.”

반듯한 이마가 내려와 세레나의 이마에 닿았다. 빛을 등진 어두운 눈동자가 검붉은 빛을 띠었다. 어느새 미소한 점 없어진 그 진지한 얼굴에 세레나는 눈을 감았다. 제대로 숨이 쉬어지지 않아 머리가 다 어지러웠다. 이제 한계였다.

“그러니까.....”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혔다. 자칫 잘못하다간 뒤로 넘어질 지도 모르는 아슬아슬한 자세였지만 나룬이 허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었다. 앞에서 나룬의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라 하는지 잘 들리진 않았지만 관심 없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오뚝이마냥 한껏 몸을 뒤로 젖혔던 세레나의 얼굴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왔다. 단언컨대 이마와 이마가 부딪치며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찌나 세게 부딪쳤던지 들어받은 세레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핑, 돌았다.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 누가 너 같은 녀석 몸을 바란데? 이 멍청아! 이미 계획에도 없던 키스를 두 번이나 했거든? 세 번째까지 너 같은 녀석하고 할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어!”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세레나의 입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폭발한 만큼 그녀는 거침없이 나룬을 향해 폭언을 쏟아 부었다.

“다 죽어가는 걸 약주고 살려줬더니 난동이나 부리고, 돈 없다는 걸 거둬서 밥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돈도 주겠다고 했더니 귀 막고 오해하고 제 할 말만 하고! 은인에게 은혜를 갚진 못할망정 원수로 갚아? 내 약사 생활에 진상도 너 같은 진상은 없었다, 이 천치야! 그리고.....어?”

산적에게 건네 줄 비자금이나 여벌 옷 하나 없이 여행을 다니는 것에 대한 대책 없음과 사람을 찾고 있음에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무식한 방법에 대해 지나긴 설교를 늘어놓으려 할 때였다. 손등으로 대충 눈물을 훔쳐 내는데 눈앞에 있어야 할 나룬이 보이지 않았다.

좌우로 움직이던 세레나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아, 이런 젠장.”

반쯤 눈이 뒤집힌 나룬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붉게 부어오른 그의 이마를 보며 세레나는 그제 서야 찬물이라도 뒤집어 쓴 것 마냥 정신이 돌아왔다.

“또 기절시켜버렸네.....”

환자를 두 번이나 기절시키다니. 게다가 이번엔 의도된 일이 아니었다. 이 뻘쬘뻘쬘한 남자의 머리가 이렇게 약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세레나는 자신의 머리가 단단한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음, 뭐.....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나룬을 향해 들리지 않을 말을 건네며 세레나가 웅얼거렸다. 조금은, 아주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든 건 사실이었다. 어쨌거나 그는 환자였고 세레나는 약사로서 환자를 보살펴줘야 할 의무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당신도 나한테 꽤 실레되는 짓을 한 번, 두 번.....아니, 여러 번 했으니까 이걸로 서로 비겼다고 칩시다.”

어쩐지 기억 속에서 스승님이 그녀를 나직이 나무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세레나는 무시했다.

불만 있으시면 직접 제 앞에서 말해주세요 스승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참 실없는 망상이었다. 비죽 저를 향해 한껏 비웃음을 지어보인 세레나는 기절한 나룬을 포대자루마냥 들어 침대로 옮겼다.

“.....”

가늘게 떠진 눈 사이로 보이는 흰자가 어쩐지 섬뜩해 세레나는 나룬의 눈을 제대로 감겨주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과 내려앉은 검은 장막에 어느새 밤이 깊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룬의 이마에 대충 질척한 타박상 연고를 치덕치덕 발라준 세레나는 먹은 그릇을 치우고 창문을 닫고 불을 끄는 등, 방을 정리하고 잘 준비를 했다.

‘아, 피곤해.’

나룬이랑 시끄럽게 떠들어댔을 땐 몰랐는데 간이의자에 등을 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피로가 물밀 듯이 몰려왔다. 어젯밤 제대로 자지 못한 대다 하루 종일 산을 타고 약재를 다듬는 등 몸을 혹사시킨 반동이 이제야 오는 모양이다.

‘내일은 근육통이라도 오려나.’

괜한 걱정애 팔을 주무르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나룬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약방은 작고 밤을 새서 돌봐야 할 만큼 상태가 위중한 환자가 오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세레나는 이 방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꽤 신기하게 느껴졌다. 스승님 외의 사람과 함께인 건 아주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세레나는 오래 전, 스승님과 함께 지냈던 시절의 기분을 느꼈다. 근 4년 만에 그녀는 꿈꾸는 일 없이 폭, 달게 잘 수 있었다. 회상컨대 그 사실만으로도 그 날은 그리 나쁜 하루는 아니었다고 세레나는 생각했다.

Chapter 2: 약방의 잡일꾼

세레나가 눈을 뜬 건 지평선 고티머리에 둥근 해의 머리가 보일락 말락 한 이른 새벽이었다. 짙은 남청빛 하늘은 동쪽에서부터 올라오는 보드라운 붉은 빛과 섞이며 조금씩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고 찢겨진 솜뭉치 같은 얇은 구름은 태양빛을 그대로 머금어 샛노랗게 빛났다.

몸을 일으켰음에도 떨치지 못한 나른함이 얇은 장막마냥 그녀의 피부 위를 뒤덮었다.

속눈썹 위를 굴러다니는 졸음을 쫓기 위해 눈을 느릿하게 깜빡이던 세레나는 깊게 숨을 들이 마시었다 내쉬기를 반복했다. 폐부 깊게 호흡하면 호흡 할수록 차갑지만 어딘가 몽근한 온기를 머금은 초여름의 맑은 새벽 공기가 그녀의 몸 전체를 휘감는 것 같았다. 기분 탓이겠지만 그래도 호흡을 반복하다보면 조금씩 잠기운이 떨어져나가 무겁던 눈꺼풀도 어느새 가뿐해져 있다.

“아아아.....역시 왔나, 근육통.....”

예상했던 대로 몸이, 특히 짐덩이(나룬)를 들고 오느라 혹사했던 어깨와 팔이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호소했다. 기지개를 키자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머릿속이 깜짝 놀랄 만큼 상쾌했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은 채 푹 잠든 덕분이었다.

“와, 세상에.”

어젯밤 행한 노동의 강도와 잠든 시간에 비해 두통 한 점 없는 현재의 몸 상태는 가히 경이로웠다. 평소라면 지금쯤 머리를 부여잡고 바닥을 구르고 있었을 터인데.

“고작 꿈 한 번 안 꿔을 뿐인데 이렇게 기분이 좋다니.”

늘 일어나던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하루를 시작했는데도 머릿속이 부드러운 깃털 속에 파묻힌 것 마냥 포근하고 안락했다. 기절하듯이 잠들어 중간에 깨지도 꿈을

꾸지도 않은 밤은 너무나 오랜만인지라 그 평온한 감각에 휩싸여 세레나는 저도 모르게 입 꼬리를 올려 미소 지었다.

이유는 대충 짐작이 갔다. 머리를 묶어 올리고 화덕에 불을 피우던 세레나는 문득 그 원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낮은 침대 위, 이불로 뒤덮인 작은 둔덕이 위로 솟았다 가라앉길 반복하고 있었다. 규칙적인 낮은 숨소리와 숨길 수 없는 타인의 존재감에 세레나는 제 텅 빈 가슴 한 구석이 가득 메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 혼자가 아니란 건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처럼 가슴 뛰는 하루의 시작을 세레나는 알지 못했다. 아니 그 옛날 언젠가는 알았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선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가사도 모르는 노래를 제멋대로 흥얼거리며 어젯밤 먹다 남은 스튜를 데웠다. 기분이 좋았다. 지금이라면 누가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제게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니, 적어도 1시간 전엔 분명히 존재했다. 자애의 여신의 신도라도 되는 것 마냥 세상 그 어떤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애로움이 세레나에게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너! 감히 날 또 기절시켜? 대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 거냐!”

스튜가 끓으면서 그 고소한 냄새가 방에 퍼지기 무섭게 눈을 뜬 나룬은 제가 기절해 있었던 사실에 또다시 펄펄 뛰다 세레나의 집에 하나 밖에 없는 침대를 부수고 말았다.

대체 뭘 어떻게 난리를 치면 침대를 두동강 낼 수 있단 말인가?